

2024. 5. 30.(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2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예방과

재난안전예방과장

강남태

02-2133-8515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 8쪽

재난예방팀장

최인성

02-2133-8517

서울시, 역대급 무더위 대비...시민 이용 편한 쉼터·폭염저감시설 등 확대

- 「2024 폭염종합대책」 9월 말까지 가동,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위해 선제적 대응
- 위기단계별 비상대응 체계 운용... 폭염특보 시 종합지원상황실 설치, 신속 대응·효율성↑
- 접근성 높은 지역에 공공·민간 폭염 대피 쉼터 확대, 취약계층 무더위쉼터 내실있게 운영
- 어르신·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대상별 돌봄 활동 강화, 안전 여부 상시 확인 체계
- 횡단보도 그늘막·쿨링포그 등 일상 속 폭염저감시설 확대 설치,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올여름도 극한의 무더위가 예상된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서울시가 접근성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시설 활용은 물론 민간과 협력해 무더위 대피공간을 운영한다. 또한 쿨링포그를 비롯해 횡단보도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도 대폭 늘려 도심 온도를 낮추고 시민들의 일상 편의와 안전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위기단계별 비상대응 체계 운영 ▲취약계층 보호 ▲시민 보호시설 확대 ▲폭염저감대책 ▲취약 시설 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 폭염종합대책」을 29일(수) 발표했다. 이번 폭염대책은 이달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동한다.

<①위기단계별 비상대응 체계 운용… 폭염특보 시 종합지원상황실 설치, 신속 대응 효율성↑>

□ 첫째, 폭염 위기단계별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상황관리 TF 등 위기관리체계를 세밀하게 구축·가동한다. 폭염특보 발효시엔 시와 자치구에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각종 위기상황과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생활지원, 에너지복구, 의료방역, 구조구급 등도 상황실로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효하고 위기단계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 위기단계별 대응체계

위기단계	판 단 기 준	근무인원	주요활동
관심(상시)	▶ 폭염 대책기간 (5.20.~9.30.)	TF팀 운영	징후 감시활동
주의(1단계) [주의보]	▶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 2일 이상 지속 예상 ▶ 급격한 온도상승 및 폭염장기화 등으로 중대피해 발생 예상	종합지원상황실 (5개반 7명)	대비계획 점검 피해상황·기후변 화 모니터링 등
경계(2단계) [경보]	▶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 2일 이상 지속 예상 ▶ 급격한 온도상승 및 폭염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 예상	종합지원상황실 (8개반 10명)	
심각(3단계)	▶ 폭염특보 지속되고, 대규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반 39명)	즉각 대응 돌입

□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도 적극적으로 가동한다. 서울시 내 응급의료기관 65개소를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의심환자 등의 사례를 접수·수집하고, 현황을 관리한다. 확정된 온열질환자 발생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 온열질환자 대상 긴급구조·구급 출동도 강화한다. 구급대(구급차 161대, 대원 1,524명), 펌블런스(펌프차 119대)에 온열질환자 응급처치 물품을 상비하고, 폭염특보 시에는 노숙인 밀집 지역, 쪽방 등을 순찰해 온열질환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계획이다.

- 이 외에도 시민행동 요령과 폭염 관련 정보도 신속하게 제공한다.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https://safecity.seoul.go.kr>)’에서 폭염특보 시 재난상황판을 전면에 표출해 재난속보 등을 실시간 제공한다.
-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어(영·중·일)로도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 안전누리 포털에서 ‘재난속보 알림 서비스’를 추가하면 원하는 언어로 폭염 관련 속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②접근성 높은 지역에 공공·민간 폭염 대피 쉼터 확대, 취약계층 무더위쉼터 내실있게 운영>

- 둘째,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폭염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무더위쉼터는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일반시민 누구나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기후동행쉼터’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기후동행쉼터는 현재 서울시내 신한은행 전 지점과 편의점(CU,GS) 등 250여 곳에서 운영 중이다.
-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대상별 전용 무더위 대피공간도 확대운영한다. ‘노숙인 전용’(‘23년 10개소→’24년 11개소), ‘쪽방주민 대상’(‘23년 5개소→’24년 7개소)은 확대하고, 동행목욕탕 4개소(‘23년 3개소)는 밤더위 대피소로 활용한다.
- 아울러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열대야를 피하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선 자치구가 지정한 총 83곳의 ‘안전 숙소’에 대한 객실료를 지원한다.
- 무더위쉼터에 대한 재정지원도 늘린다. 기존에는 냉방기 수리비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냉방기 교체 및 구매비는 물론 정수기 설치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약 43억 원을 자치구에 교부할 계획.
- 아울러 시 복지·재난부서, 자치구가 무더위 대피공간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갖추고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도 실시한다.

- 운영 활성화를 위해 쉼터별 관리책임자(3명) 지정하고 이용장소와 시간을 120(다산콜센터)을 통해 안내한다. 아울러 안내표지판과 현판 등에 부착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도 높인다.

<③어르신·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대상별 돌봄 활동 강화, 안전 여부 상시 확인 체계>

- 셋째, 노숙인·어르신·쪽방주민 등 폭염취약 시민에 대한 대상별 돌봄 활동도 강화한다. 정기적인 안전 여부와 안부확인 체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 먼저 서울역 등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응급구호반(52개 조)을 운영해 노숙인들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보호시설(11개소)도 운영한다. 생수 등 생필품 지급, 이동 목욕서비스(을지로입구역·영등포역 등 5개소, 2.5톤 차량 3대)를 제공하고, 폭염특보(10~18시) 발령 시엔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주변에 쿨링포그도 가동한다.



노숙인 무더위쉼터 운영



거리노숙인 생수 지급



이동목욕차량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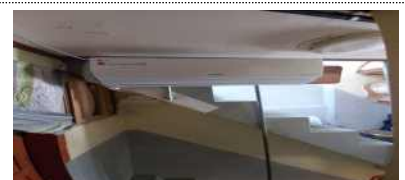
- 폭염특보 발령시,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 3만 8천여명에게 생활지원사가 1~2일 한번씩 전화·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반 10개 조(20명)도 하루 2회 순찰을 비롯해 매일 방문간호도 실시한다. 수요조사 후 쪽방 에어컨 설치도 지원 예정이다.



소형에어컨 설치(남대문 쪽방촌)



공용에어컨 설치(영등포 쪽방촌)



공용에어컨 설치(돈의동 쪽방촌)

-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폭염에 취약한 최종증독거 장애인(200명)을 대상으로 24시간 여름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 재가 장애인(24,000명)의 안전 여부는 상시 확인한다. 전기료 체납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4인 183만원)와 온열질환 의료비(최대 100만 원)를 지원한다.
- 야외근로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시 발주공사장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자가진단표와 자각증상 점검표를 하루 2회 이상 작성하도록 해 사고를 예방하고, 폭염특보에 따른 폭염영향예보제(관심·주의·경고·위험)를 활용해, 상황별 노동자 안전과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 관내 공공·민간 건설공사장 2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휴게·편의시설 설치, 폭염특보 시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 휴게시설 설치



▲ 편의시설 설치



<④횡단보도 그늘막·쿨링포그 등 일상 속 폭염저감시설 확대 설치,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 마지막으로 도심 열기를 낮추기 위한 폭염저감시설도 대폭 늘린다. 5월 말 현재 서울 시내 설치시설은 횡단보도 그늘막 3,547개, 스마트쉼터·쿨링포그·그늘막 등 총 5,080개소. 6~7월 중 횡단보도 그늘막 322개, 스마트쉼터 9개 등 약 391개 폭염저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486개의 그늘막 보수도 진행한다.

- 이와 함께 도심 열섬화 완화를 위해 지하철 유출지하수를 이용한 ‘쿨링로드’를 13개소 운영(시청역, 종로3가역, 발산역, 장한평역 등 총 3.5km)하고 주요간선도로와 일반도로 1,973km에 물청소차 189대를 투입해 최고기온 시간대(10~16시) 일 2~3회 물청소를 확대·실시한다.

- 아울러 폭염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도 선제적으로 실시해 수도·전력·가스 등 생활 필수 에너지를 중단없이 공급하기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마련한다.

-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올여름 강력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어르신, 쪽방주민, 야외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표

폭염으로부터 누구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울 조성

**추진
방향**

- ① 취약계층부터 모든 시민까지 무더위 대비 **탄탄한 인프라 및 시설** 구축
- ② 시, 구 긴밀한 협업 체계로 폭염 특보 등 위기 시 즉각 **비상대응체계** 가동
- ③ 다양한 공공,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생활 밀착형 재난대비 네트워크** 구성

**5
대
추진
과
제**

1. 실시간 상황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폭염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운용 ②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③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 출동태세 강화 ④ 기반시설 피해현황 모니터링, 신속·복구 대응체계 구축 ⑤ 시민행동요령 홍보 및 위기상황 실시간 정보 제공
2. 취약계층 보호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독거노인, 노숙인, 옥외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돌봄 ② 건강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③ 폭염 위기가구 발굴 및 생활안정 지원
3. 보호시설 운영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간 협력 폭염 대피공간 저변 확대 ② 무더위쉼터 운영 내실화 및 역할 강화 ③ 대상별 전용 보호시설 운영으로 맞춤 케어
4. 폭염저감 대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폭염피해 저감시설(그늘막, 쿨링포그, 무더위쉼터 등) 확충 ② 쿨링로드 등 도심 도로 폭염 저감대책 추진 ③ 도시숲 조성 등 도심녹화 사업 확대
5. 취약시설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도분야 - 수질관리 및 취·정수장 기전설비 점검 ② 전력분야 - 송변전·배전분야 설비 점검 및 보강 등 ③ 가스분야 - 가스시설 및 위험물 시설 등 합동점검 ④ 교통분야 - 지하철, 버스 냉방 작동상태 수시점검 등

자치구별 폭염 저감시설 추가예정 (市 지원 기준)

(단위 : 개, 자치구 수요 기준)

구분	계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쿨링포그)	스마트쉘터	퍼걸러	기타
		고정형	스마트				
합 계	391	149	173	18	9	42	
종 로 구	4	-	4	-	-	-	
중 구	7	-	1	2		4	
용 산 구	20	-	20	-	-	-	
성 동 구	0	-	-	-	-	-	그늘막 유지보수 164
광 진 구	25	-	22	-	3	-	
동 대 문 구	20	-	5	-	-	15	
중 랑 구	54	30	20	-	4	-	
성 북 구	16	5	3	1	1	6	
강 북 구	20	-	20	-	-	-	
도 봉 구	24	10	2	-	-	12	
노 원 구	14	10	4	-	-	-	
은 평 구	24	12	4	8	-	-	
마 포 구	2	-	2	-	-	-	그늘막 유지보수 62
양 천 구	10	-	10	-	-	-	
강 서 구	9	7	2	-	-	-	
구 로 구	4	-	4	-	-	-	
영 등 포 구	8	-	8	-	-	-	
동 작 구	11	-	10	1	-	-	
관 악 구	18	-	12	6	-	-	
서 초 구	5	5	-	-	-	-	그늘막 유지보수 242
송 파 구	37	20	17	-	-	-	
강 동 구	59	50	3	-	1	5	

※ 市 재정지원에 따른 추가 예정 시설수로 추후 조정될 수 있으며, 구 자체 예산을 통한 추가 설치도 별도 추진예정